

교회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주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쉼이라는 요인

성경: 롬 12:5, 고전 6:17, 12:24, 31하, 13:1-8상, 10:17, 레 2:4, 엡 3:16-17상, 4:16

I.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전적으로 유기적이다 — 롬 8:2, 6, 10-11, 12:4-5.

- A. 사도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일의 궁극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몸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서 최고의 요점이다 — 롬 12:4-5, 고전 12:12-13, 18-22, 엡 1:22-23, 2:16, 3:6, 4:4, 12, 15-16, 5:23, 30, 골 1:18, 24, 2:19, 3:15.
- B. 로마서 12장은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몸에 대해 말한다. 5절은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라고 말한다.
1. 이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단어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기적인 연결의 문제이다 — 비교 요 3:16, 롬 6:3-6, 11:17, 19, 16:7-10, 고전 1:30, 고후 2:17, 5:17, 12:2, 갈 3:27.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 때 실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 롬 8:16, 고전 6:17, 딤후 4:22, 롬 8:4-6.
 3.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5:4-5, 비교 8:31, 15:7.

II.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몸을 아는 것이 합당한 주님의 회복이다 — 고전 12:27, 엡 4:16, 골 3:15.

- A.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유기적인 요인으로 취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단지 인간적인 조직일 뿐이다 — 고전 1:2, 12:12-13, 27.
- B. 몸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몸이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하며 아무 가치가 없다 — 롬 12:4-5, 16:1, 4, 16.
- C. 사랑은 덮어 주고 건축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8:1하, 12:31하, 13:1-8상, 13.
- D. 장로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여 몸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장로들은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 요 21:15-17, 고전 13:4-8상.

- E.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착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몸의 실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 엡 3:16-17상, 4:16, 골 1:27, 3:4, 15.
- F. 주님께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몸의 실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 엡 1:22-23, 4:16, 5:27, 30, 계 19:7.
- G.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하나님의 원수를 파멸시키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러 돌아오실 수 없다 — 엡 1:10, 3:10, 계 12:11, 19:7-9.

III.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인데, 시온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이기는 이들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 엡 1:22-23, 4:16, 고전 1:2, 12:27, 계 14:1, 21:2.

- A.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그들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 — 시 48:2, 11-12, 50:2, 20:2, 53:6상, 87:2.
- B. 예루살렘은 교회 전체를 예표하지만, 시온은 교회의 이기는 이들을 예표한다. 구약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특징과 생명과 축복과 세워짐이 시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왕상 8:1, 시 51:18, 102:21, 128:5, 135:21, 사 41:27, 율 3:17.
- C.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이다. 주님의 믿는 이들 가운데 남은 이들, 곧 초기의 이기는 이들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계 19:7-9, 20:4-6). 그런 다음 그들은 후기의 이기는 이들인 주님의 나머지 믿는 이들과 합해져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이다(계 21:2-3, 7).
 1. 초기의 이기는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의 실재, 곧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있다. 그들은 피난처를 제공하는 보금자리인 돛 제단으로 예표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안식을 제공하는 집인 분향단으로 예표되신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합병됨으로써, 내적으로 교회의 길을 간다 — 시 48:2, 84:3-5, 비교 잠 27:8.
 2. 이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혼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 — 빌 3:10, 4:12, 계 2:4-5, 7, 12:11.
 3. 주님은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살아 내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그분을 다시 모셔 오고 그분의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저에게 공훈과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이기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IV.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고전 12:24).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게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섞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 B.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되게 하며, 고르게 하고, 연합되게 하기 때문이다 — 비교 겔 1:12과 각주 1.
- C. 한 무리의 책임 형제들이 자주 함께 모이지만 섞이지 않을 수 있다. 섞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만져지고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D. 이러한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 비교 고전 1:9.
- E. 우리는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도는 추천과 문안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었는데, 이것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롬 16:1-16, 21-23, 20.
 1.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절차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경륜을 실제로 실행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에서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3. 교회가 한 떡이라는 바울의 사상(고전 10:17)은 그 자신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것은 소제물에 관한 구약의 말씀에서 취한 것이었다(레 2:4). 소제물의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은 기름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섞임이다.
 4. 섞임은 매우 높고 깊을 뿐 아니라 매우 비밀하기 때문에 누구도 좀처럼 섞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섞임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섞이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5.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엡 3:8-10, 1:9-10)의 최종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계 21:2)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V.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이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 엡 4:20-24, 3-4.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실재의 영이며, 이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포함하신다 — 요 16:13, 행 16:7, 롬 8:16, 고전 6:17, 빌 1:19-21상.
- B.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본에 따라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 결과 그분의 전기는 우리의 역사(歷史)가 된다.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 —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갈 6:17-18, 롬 1:1, 9, 빌 2:5.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자신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다 — 빌 4:5-9.

- D.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하나님-사람들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결 안에서 연합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레 2:4-5, 시 92:10, 고전 12:12, 10:17.
1. 우리가 '연합되는'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생활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연합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며, 이러한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다. 이 부활은 믿는 이들 안으로 완결되신 하나님을 나누어 주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해방하여 넣어 준다.
- E.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이러한 단체적이고 연합되는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된다 — 계 21:2-3, 9하-11, 22.